

홍콩 민주당 공식 해산…30년 민주화 역사 막 내렸다

“결과 감수하라” 경고 속 해체 수순…총회서 해산안 가결
국가보안법·선거제 개편 이후 주요 민주 진영 잇단 봉고

올해 초부터 해체 수순을 밟아온 홍콩 민주당이 창당 30여년 만에 해산하기로 공식 결정하면서 홍콩의 공식 민주화 세력이 사라지게 됐다.

15일 로이터·AP·교도통신과 홍콩프리프레스(HKFP)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개최된 민주당 임시총회에서 당 해산 동의안이 가결됐다.

로킨헤이 민주당 대표는 투표에 참여한 당원 121명 가운데 117명이 해산에 찬성표를 던졌고 4명이 기권했다고 밝혔다. 반대표는 없었다. 이에 따라 홍콩 최대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30여년의 역사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 민주당은 지난 2월 지도부가 당 해산 방침을 정한 뒤로 해체 수순에 들어가 4월 해산 결의안을 마련하고 이날 총회 투표에 부쳤다.

로 대표는 총회 후 기자회견에서 “변화하는 시대에 따라 우리는 한 장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게 됐다”며 “당당한 범위에서 모든 것을 시도해왔지만 계속 앞으로 나아가기에는 전반적인 정치적 환경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정당 멤버인 영섬 부대표는 “(민주당의) 해산은

홍콩이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사회에서 권위주의 사회로 되보았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지금은 저점이지만 모든 희망을 잃은 것은 아니다”며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 원칙 아래 홍콩에서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것이 완전히 실패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외신들은 그러나 민주당의 해산이 홍콩에서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민주화 세력이 사실상 붕괴했음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AP는 “홍콩 최대 민주화 정당의 해산 결정으로 한때는 다양했던 홍콩 반(半)자치 시의 정치 지향이 종말을 고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도 민주당의 해산이 “최근 수년간 이어진 안보 단속에도 남아있던 홍콩의 자유주의 목소리에 대한 중국의 압박이 달성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구체적인 해산 사유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중국 당국의 압력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당지도부는 앞서 외신 인터뷰 등에서 중국 당국자 등으로 부터 당을 해산하지 않을 경우 ‘결과를 감수해야 할

것’이라는 경고를 받았다고 말한 바 있다.

민주당은 보통선거권을 주장하고 당헌에 ‘홍콩은 중국의 불가분한 일부’라고 적시하는 등 온건 자유주의 성향의 정당으로 평가된다.

1994년 창당해 1997년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된 다음 해인 1998년 입법회 선거에서 60석 중 13석을 차지하는 등 홍콩 민주 세력을 대표해왔다.

민주당의 공식 해산 결정은 고층아파트 회계 참사 여파 속에 지난 8일 야권 후보 없이 홍콩 입법회 선거가 실시된 지 약 일주일 만에 이뤄졌다.

홍콩에서는 2019년 대규모 반정부 시위 이후 2020년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 2021년 ‘애국자만 출마 가능’ 조건을 단 선거제 개편 등을 거치며 야권 세력이 급격히 위축됐다.

민주진영 정치인과 활동가들이 체포되고 시민사회단체들이 사라지는 가운데 지난해 3월 시민당이 공식 해체했고 올해 6월에는 사회민주당연맹(LSD)도 해체했다.

홍콩 침회대 정치학 교수였던 벤슨 윙은 민주당의 해산이 “결국 1997년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된 이후 홍콩의 민주화 운동이 점진적으로 종말을 맞이했음을 보여준다”며 “중국 당국이 당신을 적으로 간주하면 아무리 온건한 입장이라도 언제나 적으로 낌게 된다”고 교도통신에 말했다.



홍콩 민주당 창당 멤버인 영섬(가운데) 등 당 지도부가 지난 14일 총회에서 당 해산안이 가결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크라전 종전 논의 급물살…미·우 “많은 진전 이뤄져”

20개 조항 평화안 논의…15일 재개

미국 대표단은 14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우크라이나 측과 진행한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논의에 “많은 진전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특사인 스티브 유키프는 이날 자신의 엑스(엑스·엣트워터)에 올린 미-우크라이나 설명 자료에서 해당 회담이 볼로디미르 짐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진행됐다고 전했다.

위코프 특사 외에 미국측 대표로 트럼프 대통령의 민사위인 재러드 쿠시너도 참석했다.

위코프 특사는 이 회담이 5시간 이상 진행됐다면서 “대표단은 20개 조항의 평화 계획, 경제 의제, 그리고 더 많은 것들과 관련한 깊이 있는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특히 “많은 진전이 이뤄졌으며, 내일(15일) 오전에 다시 만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가 가기 전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해 노력 중이다.

다만, 미국이 애초 마련한 28개 조항의 평화 구상에 대해 우크라이나가 20개로 조항이 줄어든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이번 베를린 회담이 마련됐다.

미국의 종전 제안이 영토 분할이나 우크라이나 안전보장 등에서 애초 러시아에 유리한 쪽으로 기울어졌다는 평가가 많았다.

이에 15일까지 이어지는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 회담에서 전쟁을 끝내기 위한 실질적인 합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연합뉴스

맨 손으로 호주 총격범 제압한 ‘시민 영웅’…평범한 두 아이 아빠

호주 시드니의 해변 총격 사건에서 총을 든 용의자 뒤로 몰래 다가가 몸싸움을 벌이다 총기를 빼앗는 데 성공한 영웅은 40대 과일가게 주인으로 총상을 입고 현재 병원에서 회복 중이라고 외신들이 전했다.

이 시민이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총격범을 현장에서 제압하는 모습은 사건 당시 영상으로 활영돼 온라인으로 널리 공유됐다.

15일(현지시간) 호주 세븐뉴스와 영국 BBC 등에 따르면 이 영상의 주인공은 시드니의 과일 가게 주인 아흐메드 알 아흐메드(43)씨로 확인됐다.

전날 저녁 활영돼 온라인으로 확산한 영상을 보면 아흐메드 씨는 큰 나무 아래서 장총을 든 채 사격하는 총격범을 차량 뒤에 숨어 지켜보다 뛰어가 덮친다.

아흐메드 씨는 이어 뒤에서 총격범의 목을 감싸

안고 몸싸움을 벌이다 총기를 빼앗는 데 성공한다.

놀란 총격범은 뒤로 넘어졌고, 빼앗은 총기를 겨누는 아흐메드 씨의 눈치를 살피다가 뒷걸음질 치며 공범이 있는 보행자 다리 쪽으로 도망친다.

총격범이 달아나자 아흐메드 씨는 총을 내리고 손을 들어 허공에 흔든다. 이는 현장에 접근하는 경찰관에게 자신이 총격범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행동으로 보인다.

호주 언론들은 따르면 아흐메드 씨는 두 아이의 아빠로, 현지에서 과일 상점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로 보아 그는 아랍이나 중동계로 추정된다.

그의 가족들은 아흐메드는 팔과 손에 각각 한 발의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은 뒤 회복 중이라고 전했다.

아흐메드의 사촌 무스타파는 세븐뉴스에 “아흐메드가 아직 병원에 있으며 뭐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의사은 괜찮다고 했다”면서 “그는 영웅”이라고 말했다.

호주 지도자들도 앞다퉈 용감한 행동에 경의를 표했다.

아흐메드 씨의 신원이 알려지기 전인 전날 크리스 민스 뉴아우스웨일스주(NSW) 총리는 브리핑에서 “그분은 진정한 영웅”이라면서 “이분의 용감한 행동의 결과로 오늘 밤 많은 사람�이 살아 있게 됐다는 데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앤서니 앤더슨 호주 총리도 “많은 호주인이 다른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위험 속으로 뛰어드는 것을 보았다”면서 “이분들은 영웅들로, 그들의 용감함이 사람들의 목숨을 살렸다”고 말했다.

이집트, 파라오 조각상 ‘멤논의 거상’ 공개

20여년간 복원 작업

이집트에서 거대 파라오 조각상 두 점이 20여년간의 복원을 거친 끝에 14일(현지시간) 공개됐다.

AP통신에 따르면 이집트 정부는 이날 남부 룩소르에서 이른바 ‘멤논의 거상’이라고 불리는 조각상 두 점을 공개했다.

이들 조각상은 약 3400년 전 고대 이집트의 번성기를 통치했던 파라오 아멘호테프 3세의 모습을 조각한 것이다.

기원전 1350년경 만들어진 이 조각상들은 각각 높이 14.5m, 13.6m에 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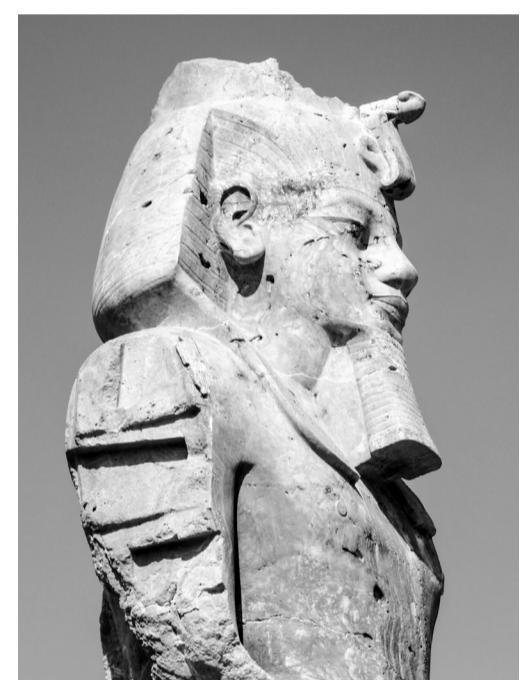
아멘호테프 3세가 양손을 허벅지에 올리고 앉아 있는 모습이며, 석상의 얼굴은 동쪽의 날강을 바라보고 있다.

머리에는 파라오가 쓰는 머리 천 조각인 네메스(Nemes)를 하고 있다. 석상의 발아래에는 두 개의 작은 조각상이 있는데 이는 아멘호테프 3세의 아내인 티에를 나타낸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조각상은 이집트 중부 하드늄에 있는 채석장에서 기저온 설화석고로 제작됐으며 아멘호테프 3세가 룩소르에 지은 장제전(국왕의 영혼을 제사하던 신전) 입구를 지키는 용도로 만들어진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이 조각상은 기원전 1200년경 발생한 지진으로 무너져 조각났다. 일부 조각은 다른 신전으로 옮겨져 재사용되기도 했다.

그러다 1990년대 후반부터 고고학자 등 전문가로 구성된 이집트와 독일 합동 조사팀이 복원에 나섰다.

멤논의 거상 복원과 공개는 이집트의 관광업을 부



14일 공개된 이집트 룩소르의 ‘멤논의 거상’.

홍시기기 위한 지원이기도 하다고 AP는 전했다.

지난달에는 20년간의 준비 끝에 이집트 유물 10만여점을 소장한 ‘이집트 대박물관’이 정식 개관했다.

고대 이집트 유물을 중심으로 한 관광업이 발달한 이집트는 지난 2011년 이후 정치적 혼란 등으로 관광 산업에 타격을 입었으나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이집트 당국은 올해 약 1800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텀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칼라강판 지붕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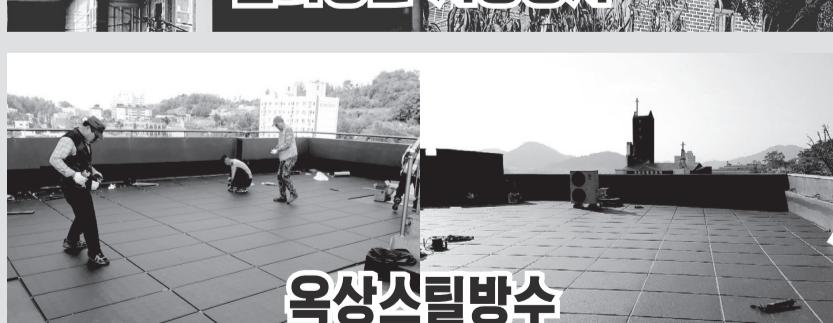
건물 리모델링



전원주택신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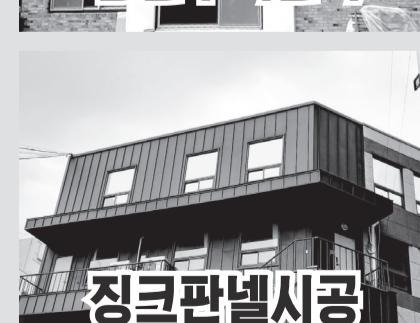
공장신축



옥상스틸방수



주택(외, 내부) 리모델링



징크판넬시공



창호(샷시)교체